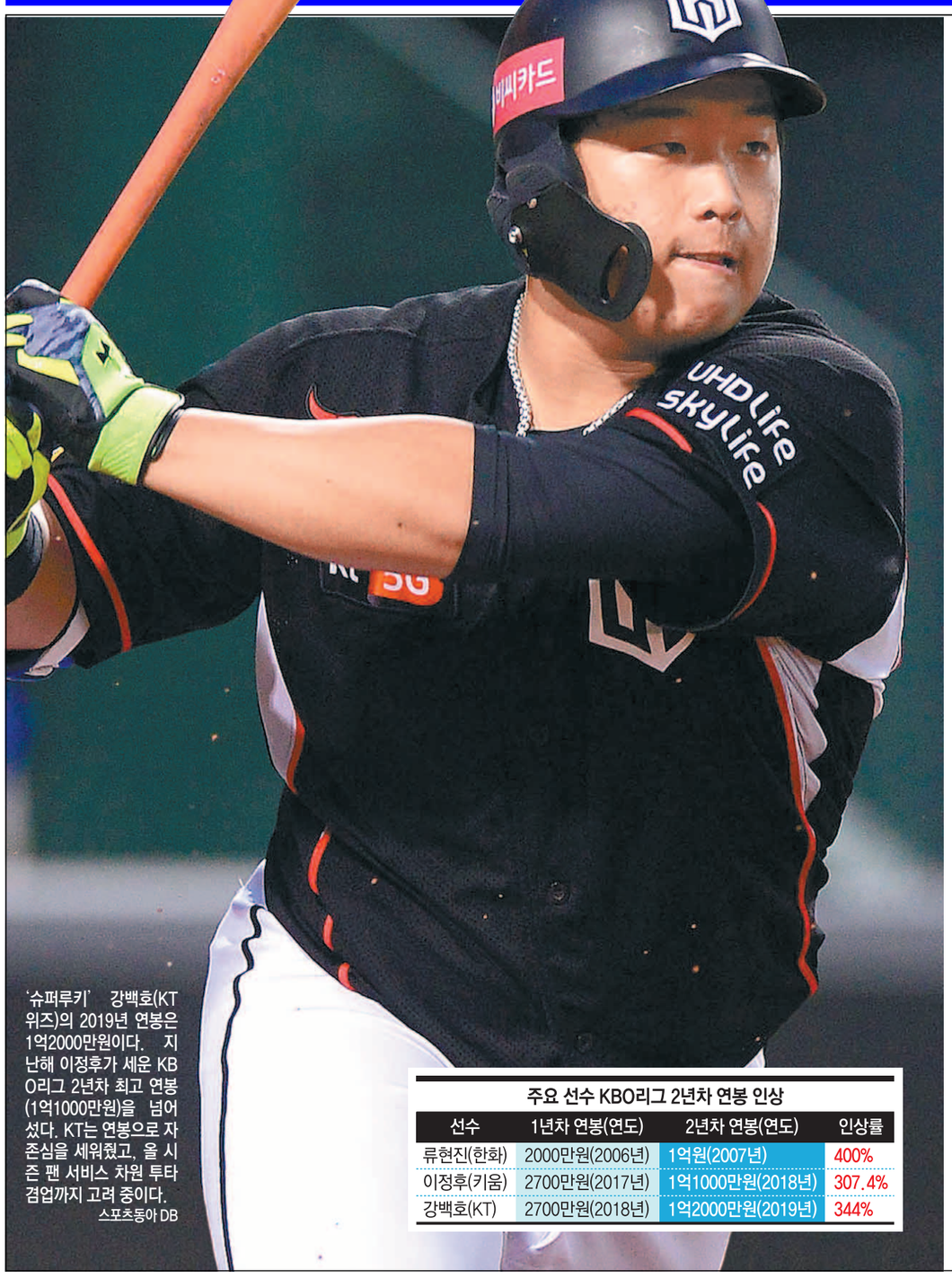
스포츠동아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sportsdonga.com 10판



코리아피겨 '압도적 우승'
차준환, 세계선수권 진출
▶2면



'슈퍼루키' 강백호(KT 위즈)의 2019년 연봉은 1억2000만원이다. 지난해 이정후가 세운 KBO리그 2년차 최고 연봉(1억1000만원)을 넘어섰다. KT는 연봉으로 자존심을 세워줬고, 올 시즌 팬 서비스 차원 투타겸업까지 고려 중이다.
스포츠동아 DB

주요 선수 KBO리그 2년차 연봉 인상

선수	1년차 연봉(연도)	2년차 연봉(연도)	인상률
류현진(한화)	2000만원(2006년)	1억원(2007년)	400%
이정후(키움)	2700만원(2017년)	1억1000만원(2018년)	307.4%
강백호(KT)	2700만원(2018년)	1억2000만원(2019년)	344%

KT 강백호 연봉 1억2000만원 사인… "이정후를 넘었다"

2년차 역대 최고액 대우 KBO 간판스타로 키운다

'무조건 이정후보다 많이 주자' KT 공감대
작년 2700만원에서 단번에 9300만원 올라
성장성·스타성 인정…KT 대표선수 큰 그림
투타겸업 등 '강백호 키우기' 가속화될 듯

KBO리그 2년차 최고 연봉 기록이 1년 만에 새로 쓰였다. 2018년 이정후(21·키움 히어로즈)가 세운 1억1000만원을 올해 강백호(20·KT 위즈)가 1억2000만원으로 뛰어넘었다. '간판스타' 기근에 시달리던 KT는 강백호를 빛나게 돕고 있다. KT가 그리고 있는 '빅 픽처'다.

KT는 13일 강백호의 2019시즌 연봉을 발표했다. 2018년 최저 연봉(2700만원)을 받았던 강백호는 344%(9300만원) 인상된 1억2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지난해 이정후의 2년차 연봉 1위 기록을 갈아 치웠고, 2007년 류현진(당시 한화 이글스·인상률 400%)에 이어 역대 연봉 인상률 2위에 올랐다.

강백호는 지난해 138경기에서 타율 0.290, 29홈런, 84타점을 기록하며 단숨에 KT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고졸신인 최다 홈런(종전 21개·1994년 김재현) 기록을 새로 썼고, 고졸루키 첫 3연타석 홈런을 폭발하는 등 빼어난 성적을 자랑했다. 신인왕은 당연한 결과였다. 강백호의 연봉 인상폭에 관심이 쏠렸던 것도 그래서다.

이정후는 2017년 전 경기에 출장해 타율 0.324, 2홈런, 47타점, 111득점을 기록했다. 신인 최다 안타 기록을 쓰며 당시 2년차 최고 연봉을 받았다. 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도(WAR)는 2017년 이정후가 3.67, 지난해 강백호가 2.10이었지만 KT 내부에서는 이를 뛰어넘는 상징성에 주목했다. '이정후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액을 줘 2년차 최고 연봉자로 만들자'는 프런트 내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됐다.

이숭용 신임 단장과 KT 프런트의 '통큰 결정'이 작용한 결과다. 연봉 1억2000만원에는 강백호를 구단 간판스타, 나아가 KBO리그 대표 스타로 만들기 위한 KT의 '큰 그림'이 깔려있다. 강백호의 투타겸업도 같은 맥락이다. 선발투수나 필승조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신임 이강철 감독은 점수차가 넉넉한 상황의 팬 서비스 차원으로 적극 고려 중이다.

KT는 지난 시즌 내내 강백호 스타 만들기에 나섰다. 구단 홍보팀은 올스타전 당시 강백호의 이름이 적혀있는 공을 지참, 팬 사인회를 찾은 팬들에게 나눠줘 흔한말로 '대박'을 쳤다. 강백호의 기량만큼은 같은 또래 최고로 꼽힌다. 2018시즌 맹활약으로 이를 증명했다. 하지만 별은 혼자 빛나지 않는다. 탁월한 기량을 갖춘 강백호는 구단의 장기적 플랜에 힘입어 더 큰 스타로 성장하고 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서브로 갈렸다…현대캐피탈 5연승 선두 독주

파다르 서브에이스 7개 등 29점 맹폭
승점 첫 50벽 돌파…1강 체제 교두보

남자프로배구 단독선두 현대캐피탈이 5연승을 내달리며 마침내 '승점 50' 벽을 돌파했다.

13일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도드람 2018~2019 V리그' KB손해보험과의 4라운드에서 세트스코어 3-1(27-25 23-25 33-31 25-23) 승리를 거두고 시즌 19승째(5패), 승점51을 마크했다. 최근 체력이 떨어져 힘들어보였던 파다르가 중요한 순간에 7개의 서브에이스를 포함해 29점을 올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현대캐피탈은 서브에이스 13-1로 상대를 압도했다. KB손해보험 펠리페의 공격도 무시무시했다. 무려 41득점 60%의 공격성공률을 기록하고도 팀의 2연패로 웃지 못했다.

1세트부터 현대캐피탈은 펠리페의 공격에 고전했다. 점수차가 벌어질 위기마다 전광인~문성민~이시우의 서브에이스로 간신히 따라붙은 뒤 25-25에서 파다르의 오픈공격에 이은 서브에이스로 세트를 끝냈다.



파다르

1세트 7득점했던 현대캐피탈 신영석이 서브를 넣다 종아리에 이상이 생기는 변수가 발생했다. 2세트부터 그를 대신한 홍민기와 차영석의 중앙속공은 자주 막혔다. 상대의 공격이 단순해진 덕분에 KB손해보험은 2세트를 가져가며 균형을 맞췄다.

3세트 내내 끌려가던 현대캐피탈은 전광인의 블로킹으로 23-23을 만들었다. 이어 듀스공방이 계속됐다. 두 팀은 지난해 11월 23일 같은 곳에서 벌어진 2라운드 3세트에서 무려 35-33까지 가는 대접전을 펼쳤다. 4528명의 관중이 열광한 가운데 재차 듀스 혈투가 벌어졌고, 현대캐피탈은 상대 범실을 틈타 33-31로 웃으며 승기를 잡았다.

현대캐피탈의 기세는 4세트 막판에도 발휘됐다. 16-19에서 파다르의 2연속 서브에이스가 나오며 값진 승리를 따냈다. 파다르는 경기를 끝내는 득점포함 막판에 무려 6점을 몰아치며 이날의 주인공이 됐다.

의정부 |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이란과 8강 안돼!…벤투호, '조1위'가 절박한 이유 ▶3면
경남 유니폼 입은 '베테랑 수비수' 곽태휘의 꿈 ▶11면

